

좀더 깊은 안목으로 소위 '한류' 를 지속시킬 생각이라면 위축되어 지속력이 있는 것들로부터 내재된 힘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물론 대중적인 '한류' 에 애써 찬 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 주름 종이처럼 무한한 연장성을 가진 전통문화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악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Traditional Culture

그 할리우드를 연상하는 조잡한 조어력도 그러하거나 스스로 범위를 한정시키고 알팍한 속이 보이는 '한류우드' 의 조성계획안은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기성세대에 일고 있는 '반한류' (反寒流) 반, 아니 혐한류(嫌寒流)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지극히 '한류' (寒流)스럽다.

좀더 깊은 안목으로 소위 '한류' 를 지속시킬 생각이라면 위축되어 지속력이 있는 것들로부터 내재된 힘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물론 대중적인 '한류' 에 애써 찬 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 주름 종이처럼 무한한 연장성을 가진 전통문화의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음악 시스템을 가지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음악의 명상성을 살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명상음악 축제' 를 열어 본다든지, 예술적으로 뛰어난 상여소리와 제례음악이 있으니 아시아 레퀴엠 축제를 생각해 본다든지, 아시아권의 전통음악을 가장 잘 녹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튜디오와 최고의 아시아권 전통문화 아카이브를 조성해서 일반인

들의 관람을 세계 문화 관련인들 사이에 새로운 아시아 문화의 메카로 만들어 본다든지, 최고의 아시아 음악문화(전통문화)방송을 보유해서 허브로 만들어 본다든지, 생각하면 무한하다.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지 국가의 문화 사절로서 만족하면서 들끓는 문화 전쟁터의 변방에서 고요히 현을 뜬 음악인들의 고요한 체념과 쓸데없는 자존심도 사라질 것이다.

보따리 장사할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전체를 멋진 아트 마켓으로 만드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전통문화는 분명 '한류' 속에 '한류(寒流)가 될 것이다. 분야가 좀 다르기 하지만 하나 더 제안할까? 최고의 섬유산업 강국인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루지는 수문장 교대식의 퍼포머들의 옷은 싸구려 현수막 천을 뜯어다가 만들었는지 초라하기 그지없다. 애정이 행운을 부르는 법. '한류' 에 열광하며 우리나라를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더 품격 있고 풍부한 문화로 감동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애정의 결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

기'획' 문화나 예술이나 - 새로운 예술로 새로운 문화를 ⑧
한류, 대중에서 예술로 _ 예술의 새로운 움직임들 한류로 이어져

한류, 예술교류를 동반한 문화적 재발견의 과정으로

이규석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대표

culture | art
바야흐로 우리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며, 그 전면에는 '한류' 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류열풍을 '예술교류를 동반한 문화적 재발견' 의 과정으로 새롭게 갖춰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류' 는 한국 대중문화 일변도의 알팍한 지류가 아닌, 아시아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새물결과 만나는 아우라지가 될 것이다.

한류의 아시아적 확산과 위기

한국전쟁 이후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희미한 존재감으로 자리하고 있던 한반도가 세 차례에 걸쳐 재발견되었다. 그것은 각각 '경제적 재발견' '정치적 재발견' '문화적 재발견' 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고도압축 경제성장은 아시아로 하여금 한반도를 재발견하게 해주는 첫 번째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민주화 과정은 정치적 재발견의 관점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곳곳에 진출한 수많은 '○○사파' 들의 말쑥함을 빌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아시아 역내에서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고 있다. 불과 50여 년의 길지 않은 시간에 걸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며,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한반도의 경제적 재발견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던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경제적 자신감' 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모델이 되었다. 물론 고도압축 성장에 따른 폐해와 같은 부정적 측면에서도 톡톡히 전범 역할을 수행했음도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사회의 역동적 민주화 과정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또 다른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 요컨대,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재발견은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경제적 방면의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든든한 동료로서 그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었다.

바야흐로 우리는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며, 그 전면에 '한류' 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정치·경제적 재발견의 과정과 달리

정치·경제적 재발견의 과정과 달리 '한류'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문화적 재발견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재발견'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 문화적 재발견의 실제 역시 우리 문화의 총체적 재발견이 아니라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화'라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Rediscovery

'한류'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문화적 재발견은 동남아시아와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재발견'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 문화적 재발견의 실제 역시 우리 문화의 총체적 재발견이 아니라 '대중예술 혹은 대중문화'라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는 '한류열풍' 못지않게 '반한류'의 정서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재발견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류열풍'은 문화산업 세계화의 아시아적 현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아시아 문화교류의 촉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류는 예술교류를 동반한 문화적 재발견 과정이어야 한다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 스튜디오

정치와 경제 분야의 재발견 과정은 스스로의 존재감을 증명해 보여 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문화적으로 재발견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과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화적 재발견의 과정은 정치와 경제의 그것과는 달리 '상호주의'의 원칙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적 존재감'을 확인하고 교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제국주의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으며, '반한류'의 후폭풍과 함께 문화적 재발견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한류열풍이 '예술교류를 동반한 문화적 재발견'의 과정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갖춰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그 중요한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싶다.



대만의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



싱가포르의 서브스테이션 갤러리

첫 번째, 아시아 지역 내에서 예술교류의 상호주체성(Inter Subjectivity)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전통예술의 지속적인 교류기회 확대를 통해 상호 간의 차별적 문화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세 번째, 아시아 문화예술의 동시대적 인식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함께 실현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중 개인적 관심사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방향성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즉, 아시아 문화예술교류의 '동시대성과 상호주체성'의 실현방식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아시아 예술교류의 현장에 새로운 주체들 혹은 미래의 주체들을 등장시켜야 한다. 그것은 곧 국내의 신진 예술가들이 아시아 각국의 세대집단들과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소통 및 예술적 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일이다.

아울러 방법론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작과정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단기적 프로젝트나 창작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교류 형태로는 이들의 예술교류 과정이 '상호주체성'을 형성해나갈 수 없음을 물론이다. 때문에 그 과정을 설계하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써 '지원정책(혹은 정책수단)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서브스테이션 갤러리 전시장면

한류의 물줄기를 아시아의 뉴웨이브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가?

지원정책과 정책수단의 관점에서는 Arts Network Asia와 Asialink Arts의 운영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99년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Arts Network Asia(www.artsnetworkasia.org)는 아시아 지역의 민간 공연예술 창작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예술가 및 단체들 상호간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경영, 문화행정 분야의 교류를 매개해 주고 있다. 1999년 창설 이후 2004년까지는 싱가포르의 Theaterworks가 간사단체로서 역할을 했으며, 현재는 말레이시아의 Five Arts Centre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호주의 마이어재단(Myer Foundation)과 멜버른대의 지원으로 1990년 설립된 Asialink Arts(www.asialink.unimelb.edu.au)는 호주 예술가들이 아시아 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창작 및 문화교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아시아 19개국과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자국 예술가들의 아시아 문화교류에 기폭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한편 인프라의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서브스테이션(Substation, www.substation.org)과 대만의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Taipei Artist Village, www.artistvillage.org)와 같은 역할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이자 예술교육센터인 서브스테이션은 지난 1990년 故 코바오쿤(Kuo Pao Kun)에

아시아 예술교류의 새로운 주체들을 길러내고, 긴 호흡에서 이들의 창작교류를 매개해 줌으로써 스스로 아시아 문화의 동시대성과 미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필자는 그것이 '아시아 예술의 새물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New Wave

의해 설립되었다. 코바오쿤을 위시한 싱가포르의 예술가들은 아르메니안 거리에 위치한 구(舊) 발전소 건물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싱가포르국립예술위원회(Singapore National Arts Council)가 예술공간 조성사업(Art Housing Scheme)의 일환으로 승인함으로써 서브스테이션이 탄생하게 되었다. 창설 이후 현재까지 서브스테이션은 싱가포르 자국 신진예술가들의 창작 전초기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오는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실험적 예술창작교류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오고 있다.

서브스테이션과 유사한 인프라 사례로써,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는 타이페이시 소유의 폐쇄된 관공서 건물을 리노베이션하여 2001년 10월 개관한 국제 예술가촌(村)이다.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는 특히 해외 신진예술가들의 창작거주(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타이페이 예술가들과 재능 있는 해외 신진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창작교류를 매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예술가 창작거주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가 미술전시 분야에 한정되

어 있는 것과 달리,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는 문학·미술·무대예술·영상·예술경영·디자인·음악·복합장르 등 예술 전분야에 걸쳐 창작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아시아 예술교류의 새로운 주체들을 길러내고, 긴 호흡에서 이들의 창작교류를 매개해 줌으로써 스스로 아시아 문화의 동시대성과 미래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필자는 그것이 '아시아 예술의 새물결(New Wave)'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 일변도의 알팍한 지류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새로운 예술 형식과 내용을 창조하는 새물결과 만나는 아우라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예술현장에는 끊임없이 땀 흘리며 일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이 아시아의 젊은 예술 이웃들과 함께 호흡하고 창조하게 해 주는 것, 이것이 곧 '한류'의 생명력이 아시아 예술의 뉴웨이브로 흘러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